



'동산대종사문집' 출간 '견디고 참고 기다리자' 동산스님의 좌우명 국난극복의 활력소



동산스님 영정

'감(堪)·인(忍)·대(待) 즉 견디고, 참고, 기다리자'라는 좌우명으로 험난했던 정화불사의 어려움을 완수해 한국불교를 탄탄한 반석위에 올려 놓은 동산스님(1890~1965). '상송결조 수월허금(霜松潔操 水月虛襟·서리 내린 소나무와 같은 맑은 지조와 물에 비친 달빛 같은 텅 빈 마음'을 늘 지녔던 스님의 법음을 다시 접할 수 있게 됐다. 동산대종사문집편찬위원회(위원장 덕명)는 동산스님 열반 34년만에 <동산대종사문집>을 펴냈다. 동산스님의 문집으로는 처음으로 이 문집은 1931년 선학원에서 열린 조선불교 선종 제1회 수좌대회 등 스님이 함께 했던 각종 행사의 기념사진과 대비식

범어사 중수가 등이 수록돼 있다. 제3장 '여시상(如是相)'에는 승가와 재가가 바라본 스님의 진면목에 대한 글들을 담았다. 또 스님의 행장과 연보, 용성스님이 동산스님에게 내린 전계증과 전등계보도 실려 있다. 동산스님은 열반하던 날까지 매일 새벽 3시 예불을 시작으로 운려, 공양, 입방선 등의 수행일과를 하루도 빠짐없이 행한 근행정진으로 사부대중에게 모범을 보였으며, 정화불사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남자들을 가르치는 일 못지 않게 대중교화에도 마음을 쏟아 무려 23년간이나 대승보살계 산림법회를 개최한 것으로 유명하다. 발행처는 범어사 신 각종 서문과 발원문, 일기, (051)508-3127 한명우 기자

만해스님 詩세계 '한눈에'

'한용운시전집' 나왔다 시·시조·동시·선시 등 3백여편 '자유와 평화의 삶' 엿볼 기회



한용운시전집

청각과 시각의 감성, 오관의 감각을 갈날 같은 촉각 위에 올려 놓아 황홀하고 화려한 시무리들로 상상(詩想)을 창조해낸다. 그러나 거기에겐 자연인으로서의 감성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선사로서의 자유자재와 독립운동가로서의 혁명정신, 그 모든 것이 자유와 평화의 삶을 실현하기 위한 보살행이었다. 스님보다는 시인인 듯 잘 알려져 있는 만해스님(1879~1944). 현대 문학계에서 우뚝 선 고전으로 평가되는 <님의 침묵>의 주인공.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펴낸 <한용운 시전집>(장승 권)은 그런 스님의 본래면목을 시를 통해 만나게 해준다. 이 시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온 <님의 침묵>에 수록된 88수의 시 외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18수의 시, 32수의 시조, 3수의 동시와 한문으로 된 선시 163수가 들어 모두 실려있다. 만해스님의 시세계를 한 눈에 조감할 수 있다. 만해스님의 시를 모두 한데 묶은 것은 이 책이 처음이다. 만해시를 망라한 결정판. 만해스님 시의 특징은 시조와 한시, <님의 침묵>의 시들이 각기 장르에 따라 다른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아가 가는 곳은 어디나 고향인 것을/그 몇 사람 객수 속에 길이 감환나/한마디 버럭 질러 삼천 세계 뒤흔드니/눈 속에 점점이 북사곳 북게 지네' 만해스님이 남긴 163수의 한시 중 대표작인 '오도송'에는 돈오의 경지가 '눈 속의 복사꽃'으로 형상화됐다. 그리고 그 '눈 속의 복사꽃'에는 선사로서, 독립운동가로서, 자연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담고 있다. '세상일 잊은 양하고 낚시 드리운 저 어옹(漁翁)아/그대에게도 무슨 근심 있어 턱을 괴고 한숨짓노/참과(滄波)에 백발이 비치기로 그를 슬퍼하노라' 시조 '계어(溪漁)'에서 스님은 시비분별을 일삼는 선비정신을 꼬집고, '무궁화를 삼고자'에서는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며 독립의 의지를 불태운다.

시조와 한시를 통해 끊임없이 독립정신을 노래했지만 <님의 침묵> 88편의 시들에서는 시가 '체합하는 생명체'임을 보여준다. '흔들여 빼는 님의 노랫가락에 첫잠 든 어린 잔나비의 애처로운 꿈이 꽃 떨어지는 소리에 깨었습니 다...아아, 佛이나 魔나 인생이 티끌이나 꿈이 황금이나/작은 새여, 바람에 흔들리는 약한 가지에서 잠자는 작은 새여'(무제) 마음대로 느끼고 생각하면서 그대의 '님'을 사랑하라는 뜻 미적 체험의 열락을 누리게 한다. <님의 침묵> 88편의 시들은 '님'을 초대해 한민족의 혈성을 타고 흐르는 서정성을 체험케 한다. 소설시는 김소월을 모르고 읽어도 되지만 만해시는 스님을 알고 읽을수록 그 미적 체험이 강렬해진

다. 시집 뒷부분에 만해스님의 시 세계를 분석한 윤재근 교수(한양대)의 '만해시를 위한 전야제'를 실어 스님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 시집을 기획한 만해사상실천선양회 명호근 회장은 "스님이 보여 준 독립정신과 문화정신, 그리고 불교개혁사상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대한 화두를 스님의 시를 통해 풀어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집을 펴내게 됐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우리말 금강경 읽으며 행복훈련'

조현준교수 '한글세대를 위한 독송용 금강경' (한글출판사)은 다른 역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똑같은 경전을 번역하는데 내용이 다를 수 있는 일. 하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그 하나는 한문투의 어휘들을 현대어로 재구성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금강경 예찬론이나 다름없는 '역자의 변'을 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역자가 심리학자라는 점이다. 조현준 교수(경북대 심리학)는 이 역본을 내기 위해 2년동안 하



루 7~8시간을 금강경과 씨름했다. 최소한 천 번은 읽었다. "영어와 한자 금강경을 참고하면서 산스크리트어 금강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한자본과 대조하면서 다시 번역했습니다." 조교수가 이런 열정을 기울인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시중 에 나와 있는 한글로 된 금강경은 한문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웠다. 50년전의 글투에 다 한문 그대로인 낱말의 뜻이 다가오지 않았다. '왜 현재의 우리 언어로 된 한글 금강경은 없는 것

경전속의 미륵불 살살이 수록

이소리씨 '미륵경' 석가모니 부처님 입멸 후 56억7천만 년이 되는 때에 사바세계에 태어나 중생을 교화한다는 미륵부처님. 이소리씨가 펴낸 <미륵경>(모아드림)은 팔만대장경과 <선불가진수어록>(적암유록)에 실려 있는 여러가지 구절 중 내세불인 미륵불과 관련된 부분만을 찾아 수록했다. 저자가 파악한 미륵불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은 <본생경> <화엄경> <종일아함경> <법화경> <석가계경> 등 모두 6개. 이들 경전에 포함돼 있는 미륵불과 관련된 구절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아름 집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에는 꽃이피네	법 정	동쪽나라
2	화두, 해능과 세익스피어	김 용 옥	통 나 무
3	불교인문	조계종원장부	조계종출판사
4	법수로 배우는 불교	이 재 열	여시아름
5	화두 짓는 법	포병 권민부	타 방
6	남산이 복산을 보고 웃네	맹 난 자	세훈출판사
7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립
8	가슴을 찌는 부처님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9	산승의 향기	이 학 중	운 주 사
10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 용	효 립

구입문의:(02)737-0695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현재를 바르게 살기 위한 전생기억

버지니아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인 이언 스티븐슨 박사 연구팀은 윤회설에 대한 연구끝에 놀랍게도 전생을 기억하는 20여건의 사례를 밝혀내고, 그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바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짓고, 받는다고 했다. 복도 그렇고 업도 그렇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전생에 관한 갖가지 이야기들을 묶은 책. 과거사를 알고 싶으면 지금 현재를, 미래를 알고 싶으면 현재 자기의 행동을 살피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이 책도 바로 현재를 바르고 선하게 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펴냈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우리출판사, 7천원)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석굴암·대장경 등에 담긴 민족숨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 문화재는 어떤 것들이며, 그 가치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석굴암과 팔만대장경을 둘러 보면서도 그저 외형의 장대함에 고개를 숙일 뿐 우리 민족의 숨결을 찾지는 못한다.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은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수원 화성, 창덕궁 등 5곳의 우리문화유산을 소개했다. 큼직큼직하게 실린 컬러사진은 전문가가 찍은 사진답게 차라리 작품에 가깝다. 각 문화재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도 자세하게 돼 있다. (학고재, 1만5천원)

無를 향해 기어가는 달팽이

이땅에서 불교는 어떠해야 하는가

<無를 향해 기어가는 달팽이>는 불교를 공부하는 젊은 사람이 쓴 산문집이다. 열한 개의 짧지 않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세상을 보고 불교를 생각하고 해제철학을 이야기 한다. 자신의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글들은 생활과 불교를 잘도 오간다. 그래서 문학이 느껴지고 불교가 느껴진다. 불교를 통해 바라 본 세상을 반성하고, 이 땅에서 불교가 어떠해야 할지도 반성한다. 짧은 열기로 치부하기엔 담당하면서도 냉정한 논조가 매섭다.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없음'이다. 하지만 그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無와 有를, 불교를 말한다. (시공사, 7천원)

우룡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I. 지성(至誠)으로 살자 II. 불자의 살림살이
III. 불자의 축원 IV. 불자의 기도
V. 일체고역을 벗어나는 길 VI.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신가요? 관음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B6 / 값 3,500원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많은 불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불문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예불문 속에 깃들여 있는 의미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절에 오래 다닌 불자들조차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口)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신국판 / 값 7,000원